

## 일본의 양계업

### 산란계

#### 2004년도 계란가격기금기준가격 142엔(1420원)으로 결정

금년도 계란가격기금의 보전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26엔(260원) 하락한 142엔으로 결정되었다. 보전기준가격은 2003년도의 표준거래가격이 전후 최저수준이었기 때문에 대폭 보전되어, 년도 도중에 재원이 고갈되어 보전금의 지불이 중단되었고, 금년에 들어서도 저난가가 계속되어 가입생산자의 경영안정과 기금의 건전운영의 양면에서 기준가격이 어떻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농협계열의 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은 4월 22일, 전국계란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회(全鷄連)의 전일본계란가격안정기금이 23일, 각각 평의회 원회, 이사회를 열고 기준가격의 수준을 검토하였다. 적립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기준가격 수준을 정하지 못하여 이사장에게 일임하였다.

생산자단체 등은 사료가격이 인상되어 비용이 상승하였고 저난가로 어려운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2004년도 기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적립금밖에 없어 기준가격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150엔(1,500원)수준으로 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성은 2003년도 기준가격의 수준이 높았던 것도 있어 재원이 고갈되었고 2004년도 재원도 한정되어 있어 높은 수준으로 정하면 2년 연속 보전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금년의 난가가 전년을 밑도는 수준으로 사육수수 감소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기준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이유로 140엔(1,400원)을 주장하였다. 생산자단체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드렸으나 가입생산자는 저난가의 지속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표준거래가격의 조기인상을 희망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 조류 독감 바이러스 한국형과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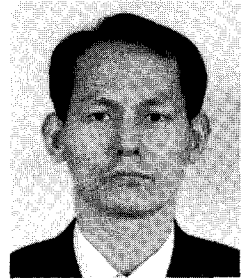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였던 조류독감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것과 99% 일치하는 것으로 조류독감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유전역학연구에 의하면 일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한국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99% 이상 일치하는 동일형으로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는 유전자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아마구찌(山口), 오오이다(大分), 교오토(京都)의 발생주변에서 실시한 야생조류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바이러스의 병원성해석에 따르면 일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닭에게 감염시키면 100% 사망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으나, 홍콩에서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H5N1주에 대한 쥐 실험결과 독성은 낮지만 폐 이외에 중추신경에도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구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찌르레기, 오리, 잉꼬에도 감염되고 미니돼지에는 감염되지 않았다(계명신문 발췌).

표. 동경계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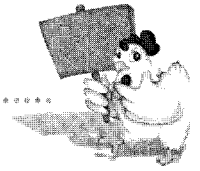
(단위: Kg/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크 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 격	170	180	180	175	170	115	880t



윤 병 선

한경대 KRRC 전임연구원/농학박사



## 목 계

### 미국산 가금육 수입해제

미국에서 가금, 가금육 등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전역을 대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한 것이 약독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발생지역별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금년 2월 이후 델라웨어주(2월 상순), 뉴저어지주(2월 중순), 메릴랜드주(3월 상순), 텍사스주(5월 하순)에서 발생한 것은 약독 조류 인플레인으로 확인되어 금년 2월7일 이후, 미국전역을 대상으로 한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해 왔었다. 이번에 미국정부로부터 텍사스주에서 약독 인플레인은 최종발생에 관련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 새로운 강독 인플레인의 발생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어, 6월 9일을 기하여 미국에 대한 강독 조류 인플루엔자의 청정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델라웨어주, 뉴저어지주, 메릴랜드주 및 텍사스주에서 약독 조류 인플레인의 청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전역을 대상으로 한 가금, 가금육의 수입금지 조치는 약독 조류 인플레인의 청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델라웨어주, 뉴저어지주, 메릴랜드주, 및 텍사스주를 제외하고 6월9일부로 해제한다고 농림수산성 담당자가 발표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2003년 가금류 사육수수와 중량 증가

농림수산성통계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가금류(닭, 오리, 메추리 포함)의 생산이 증가하여 도축수 6억9천 925만수, 중량 184만 1천 507톤으로 전년을 2% 상회하였다.

계육의 수요증가에 의해 도계수는 5억9천 528만수, 중량 164만 5천 096톤으로 각각 2%씩 증가하였으나, 1수당 생체중량은 2.763kg으로 전년보다 4.5% 감소하였다. 출하 농가수는 3,323호로 전년대비 1% 감소하였지만, 출하수수는 2% 증가하여 호당 출하수수는 3% 증가한 17만9천수였다. 출하수수 50만수 이상 농가는 150호(7% 증가), 마릿수는 1억7천 575만수(5% 증가)하였다.

사육수수의 전국비율은 가고시마(鹿兒島)19%, 미야자끼(宮崎)18%, 이와테(岩手)15%로 이들 3개 지역이 52%를 점유하였다. 반면 사육호수는 미야자끼(宮崎), 가고시마(鹿兒島), 이와테(岩手) 순이었고 전체의 7.5%를 차지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가을 닭고기 축제 개최

(사)일본식조협회는 5월 11일 개최한 이사회회의에서 금년 가을에 협회단독으로 소비자에게 닭고기 안정성과 좋은 맛을 홍보하기 위한 「닭고기 축제」(가칭)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고병원성조류 독감이 일본에서 '79년만에 발생하여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크게 보도함으로써, 닭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 후 4월 13일 조류독감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소비도 서서히 회복되고는 있지만, 더 나아가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일반소비자에게 닭고기 안전성과 좋은 맛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닭고기 축제」를 개최하여 일본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선전하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